

社會主義圈의 體制變動이 勞動者들의 反共意識에 미치는 影響

南重憲

蔚山大, 經營學科

1. 緒 論

최근의 급격한 蘇聯帝國의 崩壞過程은 社會主義圈의 근본적인 没落을 예고하고 있다. 소련의 최고법기관인 인민대표회의에서 主權國聯合體案과 過度體制案을 통과시킴으로서 70여년간 蘇聯으로 통칭해온 共產獨裁體制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USSR)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¹⁾ 共產主義宗主國에서 일어난 군부쿠데타의 失敗에 끝 뒤이은 공산당 해체 및活動禁止, 蘇聯邦의 분열 및 獨立과정, 등²⁾은 不安한 世界史의 势力不均衡을 초래하며 마치 고삐풀린 말처럼 세계사가 極右의 방향으로 치달을 조짐도 예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변동의 파급은 다시 東歐에 뿐만 아니라 中國, 北韓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大事件이 아닐 수 없다.

蘇聯의 고르바초프가 改革 및 開放의 政策을 추진한 아래 불어닥친 東歐의 거센 民主化 바람, 東獨人の 대탈주, 항가리, 폴란드, 체코, 등의 변혁, 루마니아의 혁명 및 차우세스코 대통령의 被殺, 유고의 민족분규, 동서독일통일, 중국의 천안문사태 등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일찌기 社會主義가 점차 自由主義에 밀려 침몰하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蘇聯의 軍部쿠데타의 실패와 蘇聯帝國의 붕괴는 사회주의권의 세력약화의 實像을 여실히 證明해 준 셈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蘇聯이 极심한 過渡期의 無政府狀態 및 經濟危機를 克服하지 못하면 특히 올 겨울에 食糧暴動 및 제2의 쿠데타의 가능성도 상당히 잠재되어 있다.³⁾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社會主義圈의 體制變動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산업체에 근무하는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反共意識이 어떤 방향의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를 논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의 意識이란 주변의 환경의 백락에 의하여 어떤 內容이 머릿속에 象徵物로서 再構成된

- 1) 1991년 9월 4일 (소련현지시간) 蘇聯의 最高立法機關인 人民代表會議에서 공산독재와 聯邦體制를 청산하고 代議民主主義와 構成共和國들의 土權強化에 기초를 둔 主權 國聯合體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공화국지도자회의인 國家評議會가 最高會議 권한을 거의 代身하게 되었다. 東亞日報 91년 9월 5일 1면 기사 및 9월 7일 社設 參照.
- 2) 특히 발트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1940년 獨蘇不可侵條約 비밀의정서에 따라 強制로 蘇聯에併合된 나라들로서 서구진영은 물론 소련에서도 獨立의 승인을 받았다. 美國은 9월 2일 승인하였다. 東亞, 91년 9월 2일 參照
- 3) 아직 수많은 공산세력들이 세계에 健在해 있다고 본다. 전세계의 共產黨員數는 약 8,390 만명이나 된다. (東亞 91, 9.9).

것이다⁴⁾. 그리고 이러한 意識의 相互 共有過程에서 근로자 전체의 反共意識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意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둘러싼 環境의 分析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적 이든 전체적이든 反共意識의 속성과 향방을 추정해 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⁵⁾.

우선 오늘날 社會主義 體制變動의 原因을 대체적으로 파악하여 볼 때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대별된다고 본다. 그 첫째의 방향은 後期產業社會의 도래와 더불어 世界體系 전체의 변동체계와 맞물린 外來的 요인에 의한 사회주의권의 변동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사회주의권의 내부의 自體的 矛盾의 특징이나 실패에서 찾는 방향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綜合的 인 認識을 위하여 이 두가지 방향을 結合시켜 이 양자가 相互作用속에서 파악될 때 사회주의권의 變動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2. 社會主義圈의 體制變動

(1) 後期產業社會의 到來와 世界體系 變動

世界體系論(World system)은 한 사회나 국가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단위사회나 국가를 독립된 영역으로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 全體의 巨視的인 흐름속에서 상호관련된 部分現象으로서 그 변동을 인식하는 總體的認識의 한 접근방법이다⁶⁾. 이 世界體系論은 당초에 從屬理論에서 발전된 이론이며 세계의 각 국가를 中心部와 周邊部, 그리고 半周邊部로 나누어서 이를 국가들 사이의 階級關係의 矛盾惺과 支配榨取關係를 분석하는데 관심이 있어왔으며 또 한편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를 제시하는 공헌도 매우 커다고 하겠다.

왈렌스타인(Wallenstein)⁷⁾은 世界體系, 즉 세계사의 未來의 흐름이 社會主義의 승리로 귀착될 것이라고 예언한 반면, 시로(Chirot)와 같은 학자는 이와相反되는 주장으로서 세계사의 未來는 資本主義의 승리로 예언하였는데⁸⁾ 오늘날 東歐 및 蘇聯帝國의 붕괴과정을 경험하면서 歷史는 시로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後期產業社會의 도래를豫言하는 수많은 未來學者들의 理論論構造도 사실상 시로의 예언과貫性을 이루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인식이라고 보면 또한 이러한 이론적 連結속에서 미래 세계사의 흐름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2차세계대전 이후로 인류역사의 技術變化에는 크게 加速度가 불게 되었고 매우 急變하는 소용돌이(turbulent) 치는 환경, 尖端技術情報社會, 少數의 高賃金高級人力時代, 多元主義社會, 產業自動化時代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⁹⁾.

그러면 이러한 變動의 여러가지 특징들을 共通的으로 掛繩는 原理는 무엇일까? 後期產業社

4) 象徵的相互作用理論, 現象學, 民俗方法論 등 主觀主義 관점이 여기에 해당된다. J. H.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The Dorsey Press, 1978, pp. 309~423. 참고. 그리고 Cultural Materialism도 이 이해에 도움을 준다. M. Harris, *Cultural Materialism*, Newyork, Vintage Books, 1979.

5) 反共意識에 관한 관련 著書로는, 「反共教養叢書」(서울반공청년회, 1981), 등이 있다.

6) A. Giddens, *Society*, Polity Press, 1989, pp. 530~547.

7) 박영신 글, 「世界體系의 接近方法의 理論的 展開와 批判」, 「社會學研究(세찌책)」, 대영사, 1986.

8) D. Chirot, *Social Chang in The Modern Er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6 이 책은 남종현譯, 「近代世界의 形成과 世界體系」, 1987, 대영사,로 출판된 바가 있다.

9) 오세월, 「組織行動」, 박영사, 1982, PP. 177~296.

會 와 맞물려 돌아가는 世界全體의 體系의 흐름의 基本原理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렇게 要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의 總資本은 산업사회를 경험하면서 마침내 그 再生産의 限界를 터득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바로 자본과 노동의 結合關係를 깨뜨리는 과정이며 노동자의 生産 참여를 排除시키면서 노동의 부담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다. 즉 자본이 가급적 자본 스스로 再生産을 織하는 生產樣式의 새로운 大變革이라고 볼 것이다¹⁰⁾. 世界總資本의 右翼쿠데타와 같은 변동이며 物質主義가 人間主義를 승리하는 역사적 大轉換이다.”

後期產業社會에서 이러한 거대한 世界體系의 變動이 道德的으로 옳으나 그로나의 論理的인問題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대세의 흐름은 도덕성을 超越하는 문제인 것이다. 어느 부분 사회나 국가도 여기에 적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生存여하가 달려있으며 또한 기업이든 근로자이든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적용하는 여하에 따라, 適者生存의 법칙에 의한 그 생존여하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社會主義圈의 여러 국가들도 실상은 이러한 거대한 世界史의 역사적 힘에 굴복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하고 多元主義의 시장경제로의 體制變動¹¹⁾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와의 戰爭과 闘爭過程에서만 그 체제의 純粹性이 유지되는데 社會主義 국가가 世界體系에 적응하고妥協共存하는 과정은 이미 그 體制의 變動을 임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체계의 변동, 사회주의의 變動, 기업의 變動 속에서 근로자들의 反共意識에 대한 影響力を 이해하는 것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2) 社會主義 生產樣式의 反技術的 性格

世界體界의 變動의 환경속에서 社會主義 體制變動이 內部的으로도 왜 불가피 하였을까? 후기산업사회의 先進資本主義 國家에서는 점차 자본이 노동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生產樣式을 점차 버리고 가급적이면 자본이 스스로 生產을 담당하는 生產樣式으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勞動生產性을 극도로 높힐 수 있도록 資本裝備率(설비자본/노동자수)¹²⁾을 高度化시키고 高賃金 高級技術의 少數人力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과감히 生產自動化 시스템이나 로보트로 代替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는 無人工場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예상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후기산업사회의 高度技術(Hi-tech)의 특징과 高度의 勞動生產性에 社會主義圈의 국가들이 도저히 競爭할 수 없는 뒤떨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尖端技術은 그 속성상 본디 불가피하게 언제나 開放性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비교우위의 기술선택의 과정이 부단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A나라의 기술, B나라의 기술, C나라의 기술, 등의 기술을 相互比較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기술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첨단기술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尖端技術의 보편적인 技術交流와 比較, 選擇의 과정은 體制의 開放으로서 가능한 것이며 또한 그 發展도 이로서 가능한 것이다.

美國이란 사회는 그 體制가 거의 純粹한 多元主義 市場經濟體制로서 자본이 활동하기에 가장 自由롭고 有利하며 制約이 적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體制의 특징은 세계

10) 남중현, 「組織社會의 根本問題」, 형설출판사, PP. 247~250.

11) 김규택外, 「社會主義의 將來」, 一潮閣, 1990.에서 社會主義圈의 變動의 성격과 將來를 잘 규명하고 있다.

12) 勞動者 1인당 投下된 設備資本의 수준으로서同一한 勞動投下에 대한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資本集約의인 산업으로 나가는 방향이며 노동의 生產活動의 유리한 作業條件을 形成하는 문제에 해당된다.

의 總資本이 가장 많이 流入되기 쉬운 比較優位의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尖端技術로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開放性도 갖고 있다. 순수한 민주주의, 形式的政治的自由主義가 보장되는 多元主義社會¹³⁾이지만 그 本質은 實質上 极度의 右翼 保守主義 사회이며 總資本의 偉力이 세계경제를 從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社會主義圈의 開放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선 計劃經濟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流通構造를 마비시킴은 明若觀火할 것이며 過渡期의 과정에서 經濟가 더 惡化되는 조짐을 菲연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社會主義는 인류역사상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保守主義 체제에 일시적으로 抵抗하면서 나타난 進步的인 突然變異였으며 巨大한 社會的 實驗이었다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 순수한平等理念을 실현하고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자본주의 세력에 대하여 戰爭과 革命을 계속하고 閉鎖的인 闘爭的 社會組織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적대세력과의 平和와 共存은 社會主義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¹⁴⁾ 그러나 반면 오늘날 이러한 敵對性과 閉鎖性의 체제를 抛棄하게 된 계기는 사회주의권을 지탱해온 共產理念의 崩壞와 자신들의 열등한 生活水準의 質과 自由 및 人權유린에 대한 自覺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입장과 환율 및 外換반출통제,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差別的 경제운영, 등은 最惡의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된다.

사회주의 국가는 원래 能率 보다는 完全雇傭을 더 중시하였고 국가경제에 必要한 만큼만 生產하는 것이기 때문에 不必要한 능률성을 提高하는 문제는 오히려 사회주의권의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差異가 많은 경우에도 별 의의를 가질 수 없었으며 보상수준도 노동자들 사이 가급적 서로 均等하게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이것이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勞動生產性이 극히 低調하고 또한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인센티브의 자극이 거의 없고 人力浪費가 대단히 많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계획경제를 주도하는 黨幹部의 基幹要員(Cadre)들의 성분도 보면 소위 革命世代들로서 이들은 공산주의 정치적 이념에는 투철하나 자신들이 無產者階級 출신이며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政治闘士들이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인텔리겐차를 싫어하였으며 전문적 능력자도 자기자신들에게 적용되는 基準을 바꿀 정도로 크게 優待할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能力向上과 技術開發의 動機誘發을 위한 報償體系를 만들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를테면 中國의 近代化 추진이 항상 障壁에 부딪히는 이유도 지금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당간부들이 혁명세대 또는 荣威병 출신들이며 이들의 국가경제계획에 관한 판단에는 專門的 知識이 많이 부족하여 國際交流와 技術蓄積을 어렵게 하고 있는限界가 되고 있는 것이다.¹⁵⁾ 사회주의 국가에서 革命世代들의 限界를 技術官僚階級 (소련의 경우, Nomenklatura) 들이 보완해 주고 있는데 이들은 비록 共產理念의 구현을 위한 도구적 위치에 있으나 원래 既得權 유지를 중시하는 右翼的 사상들이 잠재해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이 기술관료계급에 의한 世代交替는 사회주의 사회의 이념적 변동을 초래하는 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주의 기득권자들의 처신은 黨序列 및

13) A. Giddens, Society, pp. 305~335.

14) 베트남 공산주의자 「트란바크당」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敵들과 투쟁할 때가 지금보다 더 즐거웠다. 지금 우리는 사회전체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平和時期의 問題가 戰爭時期의 問題들 보다도 輒씬 복잡하다.”

15) 이것은 政治集團과 官僚集團 사이의 갈등을 놓고 있는 要因이 되기도 한다. 中國뿐만 아니라 北韓社會도 마찬가지이다.

地位를 이용한 여러 特權을 항구적인 既得權으로 굳히는 작업에 매력을 가지며 정치적인 권력을 경제적인 所有로 바꾸는 작업을 위하여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할 心的準備가 되어 있을 가능성성이 많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¹⁶⁾ 자신을 점차 인테리젘자로 바꾸어 能力의 差別化에 주력하며 이들은 개방과 개혁에 앞장서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소련의 軍部쿠데타는 공산이념을 고수하는 동기라기 보다는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면서 일으킨 파벌간의 기득권 爭奪戰의 權力鬪爭性格이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脫이데올로기 시대의 한 변동의 양상이라고 해석된다.

(3) 體制變動過程의 過渡期의 混亂

資本主義 사회가 社會主義 사회로 체제변동을 하는 過渡期의 중간단계에서는 대개 내란, 혁명, 경제적 마비, 권력공백, 전쟁, 등의 大混亂을 경험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 체제에서 資本主義 체제로 變動하는 과정에서도 逆으로 이러한 어려운 큰混亂의 비슷한 높지대를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中國의 천안문 사태는 이러한 높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사회주의의 보수적인 체제로 회歸한 경우이며, 蘇聯의 최근 군부쿠데타의 실패의 결과는 이混亂의 높지대를 통과하여 急速한 改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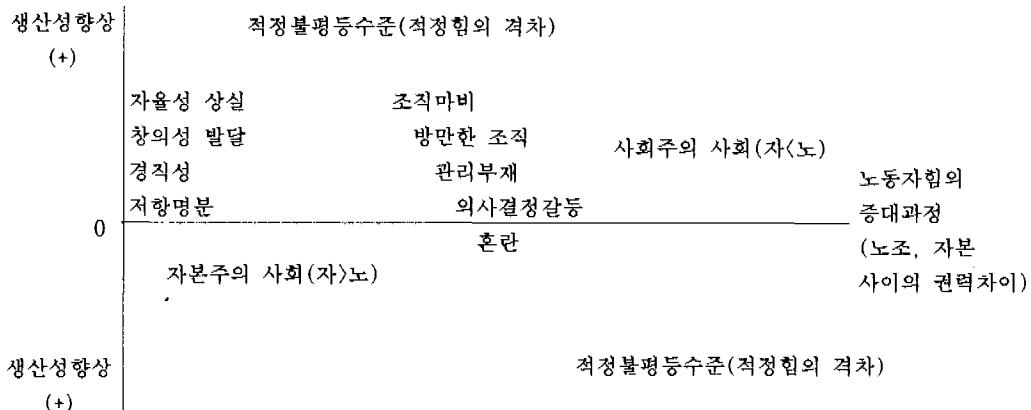
체제변동의 過渡期의 이 大混亂의 높지대의 경우는 국가권력의 원천을 이루는 큰 두가지 힘, 즉 私有化하려는 資本의 힘과 團結하려는 勞動의 힘이 팽팽히 對等하게 맞서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 過渡期에는 권력의 핵의 다원화, 공권력 부재현상, 권력의 공백상태, 국가기구 통제능력 상실, 등의 問題點들이 발생하고 경제적 유통구조의 붕괴 생산체제의 마비 등으로 국민들의 무한의 極限狀況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보겠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체제로 突破口를 찾든지 아니면 다시 구체제로 復歸하든지 하는 것은 이 중간단계의 혼란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인 인내수준의 如何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의 힘이 노동단결의 힘을 극한적으로 압도하는 독점자본주의파치즘체제나 (資)勞) 이와 반대로 노동단결의 힘이 자본의 힘을 지나치게 압도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체제 (資)勞)는 모두 그 경직성 때문에 生產性과 福祉水準이 낮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오히려 이 자본과 노동단결의 양자의 힘이 적정하게 權力의 差等을 이루는 경우 生產的인 管理力의 존재가 가능하고 또한 合理的인 報償體系 및 노동의 動機誘發이 가장 잘 이루어 진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適正管理力은 또한 適正不平等으로 지향하는 것이다.¹⁷⁾

社會主義 체제가 변동되는 過渡期에서混亂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불가피한 것이다. 폴란드 바웬사 대통령의 外債탕감의 외교 및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G7회담에서 서방의 支援要請 등은 이러한 정책이 불가피 함을 말해준다.¹⁸⁾ 이 밖

16) 共產主義 體制의 正統性과 道德性의 増失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平等意識에 개인 共產國家의 市民들은 共產主義를 成功시킨 反面 또한 瓦解시키는 底力이 되기도 한다. 노멘클라투라들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한 反面 平等意識을 가진 시민들은 아래로부터의 變革을 試圖하였다.

17) 남중현, 「組織社會의 根本問題」, 앞책, pp.308~312.

18) 舊東獨을 包含, 불가리아, 체코, 향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東 유럽 6개국의 總外債는 작년말 현재 1천 2백억 달러, 여기에 소련의 外債 480억 달러를 보태면 모두 1천 4백 8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에도 蘇聯은 核武器管理問題,¹⁹⁾ 共和國間 國境線 紛爭問題, 社會犯罪急增, 食糧問題, 등을 이 혼란기에 해결할 과제로 안고 있다.

아울든 이제 蘇聯은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의 공산주의를 포기하였고 공산당은 마치 權力獨占을 위한 마피아조직과 같은 행동을 70여년간 행사하여 무고한 인민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왔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소련은 서구의 선진자본국들과 같이 多元主義 사회로 나아가며 시장체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정치적 議會主義를 택하게 될 것이다.

3. 勤勞者의 反共意識에 미치는 影響.

(1) 우리나라 北方政策과 인플레이션의 相互矛盾性

우리나라는 海外依存度가 매우 높은 經濟構造로 되어 있기 때문에 輸出의 激減은 곧바로 國內經濟의 침체로 이어진다. 오늘날 美國과의 通商摩擦 때문에 美國市場으로의 擴大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日本의 交묘한 貿易障壁은 역시 輸出의 限界를 갖게 한다. 따라서 美國, 日本에 대한 지나친 貿易依存을 탈피하여 去來國의 多角化를 시도하는 것은 現經濟規模의 張창속도를 볼 때 반드시 不可避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北方政策의 가장 큰 動機는 바로 이러한 經濟的突破口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繼續發展시키기 위하여 실상 이것 이외의 어떤 다른 뾰족한 代案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社會主義圈의 變動, 즉 동구와 소련의 자본주의화 경향은 매우 고무적인 好條件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北方政策은 經濟的 動機外에 우리나라 統一의 可能性과 直結되는 政策的인 課題와 結合이 되어 있으며 對國民關係로 볼 때 如干 중요하고 人氣있는 잇슈가 이닐 수 없

것은 6년 사이 2배로 增加한 액수로서 外債增加速度가 빨라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外債總額이 410억 달러인 폴란드의 경우는 純外債比率(純外債 年間產出額)이 532에 이른다. 東亞日報 90.12.12. 參照.

19) 核武器는 無秩序 속에서 핵미사일 發射의 가능성도 있지만, 蘇聯軍部에 食糧不足이 심각할 境遇, 核武器 技術의 세계전과 가능성, 핵병기, 核燃料를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다.

다. 온 國民의 念願인 統一의 問題를 與圈이 獨占하고 政局을 주도하며 이로서 새로운 政權創出을 이룬다면 이는 곧 상대적으로 야권 및 재야세력의 弱勢를 초래하는 結果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 및 재야세력도 北方政策의 政治的 利得의 뜻을 같이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그렇게 부단히 애써 왔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北方政策에 관한 과열한 정치적 상호경쟁은 安保의 위협으로 이어져 政府主導이외의 북방정책의 추진을 봉쇄하기 위한 公安政局이 자주 나타난 것도 그러한 理由 때문인 것이다. 특히 民衆政治勢力에 의한 獨自의 統一推進은 철저하게 억압되어 왔다.

最近 약 4-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가히 殺人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物價의 暴騰은 實상 極右的 暴舉에 펼쳐한다고 할 것이다. 貧益貧富의 상황이 크게 심화되는 變化가 이 동안에 초래 되었으며 이로서 社會의 不平等構造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體制不安의 要因은 그간 國際競爭力 低下와 함께 北方政策의 커다란 결림들이며 복병이 되기도 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惡影響의 충격은 너무나 構造的으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흔히 그 작용에 관하여 過小評價 하기가 쉽다. 자본가들의 生產手段 獨占水準, 不動產所有水準, 不勞所得 發生比率 등이 나날이 증가되어가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공동체의 一體性을 균열시키고 붕괴의 危機에 봉착케 하는 주 要인이 되는 것이다. 政治的 民主化는 반드시 經濟的 民主化 水準으로 수렴하는 법칙이 있으며 현 經濟的 不平等構造의 상황은 우리나라 政治的 民主화의 시책들을 虛構的인 결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 인플레이션과 不平等構造의 심화는 우리사회의 階級의 矛盾을 極大化시킨다. 즉 강력한 労動統制의 과정은 노동자들의 反資本主義 意識을 저변에 強化시키게 하고 기층민의 反共意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은 勞動者 및 不滿세력을 抑壓 統制시키지 않으면 政權維持가 어려운 事情때문에 집권층은 펼연적으로 必要以上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分단논리의 強化現狀를 초래하고 外勢에 밀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對南政策에 관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公安政局의 방향은 오늘날 國際的解氷무드에 역행하는 것이며 또한 輸出의 突破口를 새롭게 열고至今 변동하고 있는 社會主義圈의 國家들에 有利하게 진입하려는 企業活動과 北方政策에 消極性을 띠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게 市場開拓의 좋은 機會들을 고스란히 양보하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의 否定的 效果와 北方政策의 肯定的 效果가 서로 競合하는 歧路에 놓여 있다고 볼 것이다.²⁰⁾

(2) 適正勞動統制와 勞使關係의 傾向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問題는 財政政策이나 金融政策과 같은 部分的이며 技術的인 점근만으로 치유될 수 없는 全般的 政局運營에 관한 根本的 관심이 요청된다. 현 시점에서 積極的인 北方政策에 의한 輸出市場의 開拓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반드시 반공 이데올로기의 緩和하에 서만 實效를 거둘 수 있음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대처할 課題는 첫째, 우선 인플레이션을 막고 福祉政策 및 所得再分配의 經濟的 民主化를 國內에서 積極的으로 실현하여 内部的으로 계급모순을 극복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크게 완화하는 일이다. 社會主義의 平等 및 共同體理念을 廢自由民主主義 체제에 적절히 접목시키고 反影시키는 것이다. 둘째, 이와 동시에 與野가 공동으로 핵심하여 (서로 競爭하거나 獨占하지

20) 남중현, 「組織社會의 根本問題」, 앞책, pp623~629.

말고) 온 국민과 함께 북방정책 및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함이 옳다.

過去에 對北 經濟的 優位의 戰略을 推進하기 위한 先成長後分配論의 高度成長過程에서 비롯된 階級矛盾이 1987년 6.29 민주화선언 直後 그해 여름 동안에 갑자기 폭증한 勞使紛糾過程에서一旦 調整되고 걸러지는 좋은 機會를 갖게 되었다. 무려 3개월 동안의 3000여개 事業所가 넘는 곳에서의 노사분규는 사상 유래없는 현상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意識과 戰爭方向의 分岐點을 이루는契机가 되기도 하였다.²¹⁾

勤勞者들은 일반적으로 短期的으로 勞組결성, 賃金引上, 作業條件 및 環境의 개선의 효과를 크게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 인플레이션 유발로 實質所得 減少, 生產性低下, 國際競爭力弱化, 企業倒産, 등 국민경제가 휘청거림으로서 長期的으로 볼 때는 근로자들에게도 별로 實質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즉 極限戰爭을 반성하고 適正戰爭의 필요성을 성찰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²²⁾ 그리고 勞動運動에 부담을 심각히 느낀 많은 기업들이 勞動集約的 산업을 모색하거나 資本裝備率을 높히고 自動化시스템으로의 전환을 裝備으로서 未熟練勞動者들의 입지가 크게不安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技術 및 경력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勤勞者들이 產業環境의 變化에 最善을 다하여 適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保守主義立場은 勞使間 階級戰爭을 벌이는 葛藤主義 精神과는 서로相反되는 것이다. 그리고 職種別 職場別 勤勞者들 사이의 임금수준의 불균형,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수준의 不均衡도 繼續的 戰爭을 不能解 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요즈음은 노사분규의 頻度가 87년도 여름에 비하여 약 10분지 1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노동운동도 政治戰爭과 經濟戰爭으로 二元化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勞組도 한국노총과 전노협으로 갈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²³⁾ 오늘날 근로자들의主流는 한국 노총 산하의 個別企業의 순수 經濟戰爭, 온전한 合法戰爭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플레이션 및 經濟的 불평등구조를 시정하는데 失敗할 경우는 언제든지 전노협 산하로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產業別, 地域別, 聯合勞組 중심의 政治戰爭으로 나아갈 可能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北方政策의 肯定的 효과와 인플레이션의 不定的 효과가 競合을 벌이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萬若 否定의인 인플레이션의 效果가 北方政策의 肯定的 效果를 암도하는 경우를 가상해보자. 우선 반공 이데올로기가 強化됨으로서 蘇聯, 中國 및 東歐圈의 社會主義體制가 급변하는 소중한 過渡期에 우리나라는 輸出市場開拓에 消極的이 되고 輸出의 多變化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貿易의 逆調現象은 경제침체 및 外貨 고갈을 가져오고 外債의 누증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國際收支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덤핑 輸出을 장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수출업체의 赤字를 報償하기 위하여 국가는 稅金 또는 通貨發行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輸出業體는 亂世를 過度로 避免하기 위하여 賃金引下 및 代金支拂延期의 방법으로 그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零細한 中小企業體의 打算性을 惡化시켜 여기에 근무하는 勤勞者들의 勤勞條件의 惡化 및 勞動統制의 強化現象으로 이어질 것이다. 낮은 賃金의 많은 都市勤勞者들의 最低生活을 保障하기 위하여 農產物價格을 統制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農業의 收支를 맞추는 것이 不可能 하여 農촌을 폐허시키고 農촌의 인구를 都市로 移動시켜 勞動供給을 대거 增加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로서 大量의 失業者들이 발생케 되고 또한 勞動者들 사이의 競争은 더욱 열악한 勞動條件을 부채질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極限的 勞動

21) 「87년 여름 労使紛糾評價報告書」, 労動部調查分析, 87년 7, 8, 9월 중 노사분규 分析.

22) 남종현, 앞책, “모순적 상황과 組織力 그리고 戰略모델”, pp. 282~307.

23) 東亞, 91. 5, 16. 全勞協에 관한 動向을 설명한 記事 參照.

運動으로의 方向轉換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輸出業體의 損害를 보상하는 稅金은 大概 새로이 貨幣發行하여 供給하게 됨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다시 商品의 國際競爭力を 低下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더욱 계급모순과 정부의 반공이데올로기의 強化現象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경우에 근로자들의 反共意識이 解體되는 程度는 정부의 反共政策 強化過程과 서로 상반되는 衝突의 경향에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지금까지 이러한 유사한 危險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労動爭議가 激烈함에 1971년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과 1973년 勞動法改惡은 공권력에 의한 노동운동의 彈壓을 시도 하려는 것이었으나 1988년 6共和國의 勞使關係法律은 특히 종전의 集團的 勞使關係의 广泛위한 改正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勞組의 集團的 意思決定에 의한 合法的 爭議行爲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民事上, 刑事上 免責條項들을 허용하였다. 이 법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제는 노사간에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團體交涉이 가능하는立法이 어느 程度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²⁴⁾ 정부는 不法勞動行爲 또는 不當勞動行爲를 제약하는 외에 노사문제에 관하여 공권력의介入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7년 이후의 격심한 노사분규의 경험과 반성으로 최근에는 勞組의 戰爭路線이 스스로 水位를 조절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이 경험하고 있는 生活與件의 惡化의 조짐은 適正管理力 또는 適正不平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단순한 노사간 힘이 對等性의 차원을 넘어서서 生產性 향상 및 動機誘發을 위한 불가피한 管理力의 保護와 合理的 報償體系를 위한 適正不平等構造를 勞組가 스스로 認定하여 주는 경향은 가장 理想的인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기업의 經營者들은 經營革新과 一體性回復을 위하여 批判組織理論의 觀點²⁵⁾에서 노사 동반자 관계로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²⁶⁾ 정부도 이러한 理想的인 勞組의 路線이 성숙될 수 있는 외생적인 環境組成에 노력하여야 한다. 즉 앞으로의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막고 經濟的 불평등을 시정하며 社會福祉 및 사회보장의 政策을 과감히 시행하는 여하에 달려있다. 기업가 전체의 입장에서도 사회의 共同體 회복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環境組成에 필요한 코스트를 과감히 共同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기업은 勞組의 极심한 經濟戰爭과 政治戰爭의 모두를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反共意識의 強化要因.

오늘날 勤勞者들의 意識이 대체적으로 保守主義로의 선회하는 理由로는 첫째 社會主義 체제의 붕괴 및 變化現象, 둘째, 87년 이후 몇년간 激烈한 노사분규의 경험과 反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약 1세기 동안의 社會主義 실험은 失敗로 끝났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동독인의 大脫走에 뒤이어 서독에 흡수 통합되는 現象,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구지역에서의 共產黨의 몰락 및 民主化의 大變革, 특히 루마니아의 대폭동과 차우세스크 정권의 붕괴, 그리고 소련의 다당제 채택과 經濟的混亂 등에서 社會主義 체제가 資本主義 체제에 敗北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즉 이 나라들의 生活相의 모습들이 比較되어 그 체계의 長點 보다 短點이 더 깊이

24) 金致善, 「勞動法講義」, 박영사 1991, pp. 3~165.

25) 오세철, 「組織行動」, 앞책, pp. 9~35.

26) 정재훈, 「勞使關係의 理解」, 대영문화사, 1988, pp. 15~84.

27) 김갑수譯, (H. C. d'Encausse著), 「클레믈린의 政體」, 상서각 1984.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이제 역사적인 遺物로서 모든 나라에서 포기되고 있고 그 체제가 가져온 戰爭, 獨裁, 彈壓, 大量殺害의 歷史的 流血事態²⁷⁾의 비참상을 再照明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國際勞動의 世界的 보편주의 團結보다는 국가 또는 민족단위의 利己的인 實利追求는 노동자들의 의식의 保守化를 초래하고 있으며 급격한 技術環境 變化에 適應해야 하는 부담은 역시 保守主義로 나갈 수 밖에 없게 하였다. 근로자들은 급변하는 環境 아래 도태되거나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이 變化를 쫓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資本의 生理에 抵抗하는 사회주의 이념의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의 質的向上과 適應的 態度를 갖기 어려운 相極的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강력한 인센티브로서 少數의 高級人力으로 내몰아가는 產業界的 거대한 바람은 勤勞者들이 사회주의 의식을 갖는 여유를 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未來의 企業內의 勞使葛藤은 거의 종식되며 오히려 無職者와 有職者 사이의 社會葛藤으로서 生產樣式을 두고 競爭하는 갈등으로 변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勞動價值說의 해석에 의거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과는 次元이 다른 後期產業社會의 人力節減型 생산양식 자체를 둘러싼 갈등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이때는 失業者가 附加價值의 配分을 받을 수 있는 논거를 勞動價值說이 아니라 勞動機會賦與說²⁸⁾같은 것이 될 것이다.

完全한 労使平等이란 管理力 不在의 혼란상황에 불과하고 또한 극단적인 資本優位의 파시즘 체제는 오히려 그 경직성 때문에 生產性低下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適正不平等構造를 유지하면서 사회전체의 生產性 향상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適正管理力 保存의 온건한 資本主義 방향으로 나아갈 必然性이 크다.

우리나라가 尖端技術의 선진자본국의 대열에 진입하면서 불평등구조를 그대로 둔 내부의 모순을 成長이라는 浮上으로 만화하는 방법, 즉 內部的인 모순을 國제적인 국가간 불평등구조의 後進國으로 마치 現在 先進 資本國들이 하는 것처럼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교역의 이익, 과실 송금, 자본이자, 기술로열티 등 後進國으로부터 벌어들인 収益으로서 국내의 근로자들의 不平等構造로 말미암은 抵抗意識을 解消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날 資本主義 사회의 불행한 사람들의 운폐과정이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화의 幻想을 갖게 하고 있다. 복지원, 고아원, 모자원, 정신병동, 감옥소, 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競爭에서 패배하고 대체로 無緣故者로 남아있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제도가 되기도 한다. 共同體 붕괴, 利己心, 商品化過程의 심화현상, 등은 사회주의의 물락이 物質主義의 人間主義에 대한 승리라는 批判을 가능케 한다. 歷史의 方向과 真理의 方向이 과연 같은지는 의문시 된다.²⁹⁾

(4) 警戒意識의 緩和要因.

蘇聯의 軍事力이 뒷받침하지 않을 때 北韓의 자체 獨自的인 戰爭隨行能力은 거의 없다고 보아진다. 금년에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하게 되어 國際社會의 緊密度가 더욱 높아져서 일방적 敵對行為는 平和를 위협하는 次元에서 견제된다. 소련이 北韓의 무력남침에 결코 同意하거나 支援을 하지 않을 만큼 남한과의 外交關係가 돈독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오히려 앞으

28) A. Giddens, Sociology, 앞책, pp. 511~513.

29) 91, 8, 29, 東亞 參照.

로는 統一外交를 펼 간 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의 남북한 非核地帶化宣言도 가능단계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한이 相互不可侵條約 및 非核地帶化條約을 맺게 된다면 더욱 북한의 정면도발 전쟁을 일으킬 위험부담은 매우 줄어질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兵器들의 量的 優勢임에도 質的 열세를 면치 못하고 經濟的 규모나 저력이 훨씬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다시 赤化野慾이 있다고 하더라도 全面戰이라기보다는 남한 내부의 聯合前線을 구축하고 내부의 蜂起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는 戰略을 취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남한의 安保問題는 不可避하게 美軍撤收에 따른 自主國防의 能力培養과 內的一體性과 共同體回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밖에 남북한소포우편교류추진, 금강산관광지역공동개발, 두만강지역경제특구건설(東亞, 91, 8, 2), 소련의 시베리아개발 공동참여, 천연가스수송관연결, 직교역추진, 등 남북한 頂上會談의 可能性도 북한에 관한 警戒意識을 크게 완화시켜 주고 있다.

최근의 北韓의 經濟는 最惡의 침체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崩壞直前에 있으며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소련과 약 60%정도 규모의 貿易依存度를 가졌으나至今 소련의 混亂상황은 물자조달을 상당히 어렵게 하여 經濟發展에 타격을 줄 소지가 많다.³⁰⁾ 그리고 債還不能의 약 70억달러의 外債累增도 큰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北韓은 最近 개방압력을 이기기 위하여 국도의 内部統制나 國粹主義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社會主義의 普遍主義와 國粹主義의 特殊主義가 상호모순을 이루는 아이러니컬한 측면이다.

그리고 南北韓 사이에 GNP의 현격한 隔差와 자유의 향유水準은 더 이상 體制優位의 논쟁은 끝났다고 본다. 北韓社會를 더 이상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남한의 勤勞者가 거의 없으며 또한 최근 근로자들의 賃金向上과 人力難에 의한 노동자 優待의 경향은 북한사회를憧憬하는 근로자의 存在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孤立化 脱皮와 經濟危機克服을 위하여 北韓의 최근 美國이나 日本과 교류를 해 보려는 외교의지 및 개방의 가능성도 警戒意識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國際的開放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사회가 崩壊될 과정에서 不安을 외부로 전가시키기 위하여 부모한 挑發을 할 가능성도 크다.

4. 要約 및 맷음말

소련의 改革, 開放政策 이후 동구유럽의 自由化 풀결, 동서독 통일, 소련의 불발 군부 쿠데타, 소련제국의 崩壞, 공산당 해체 및 활동 정지, 등의 일련의 숨가쁜 변화는 後期產業社會의 世界體系의 變動屬性과 상호 結合되어 있다. 공산사회의 내부의 反技術的體制의 속성과 경직된 官僚體制는 역시 그 변동의 不可避性과 관련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나라의 국민과 근로자들의 意識에 큰 影響을 주고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옮겨가는 過渡期의 과정에서 混亂을 경험하고 있는 현 소련의 經濟的 土臺가 완전 무너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限界狀況을 인내하지 못하고 復古主義로 回歸할 가능성, 제2의 보수반동의 쿠데타와 강력한 獨裁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30) 91.9.6. 東亞 參照, 美펜실베니아大 教授 李庭植글 참조.

91.8.29. 東亞, 統一院 「90년도 北韓經濟現況」 報告書 引用文.

소련에 약 58% 貿易依存度를 갖고 있으며 이제 政治的 고려에 의한 惠澤이 不可能 하게 되었다

蘇聯의 計劃經濟體制의 붕괴, 共和國 사이의 經濟的 相互依存, 통일된 核武器管理問題, 소련 국민들의 숭고한 諸國主義의 使命感에 관한 自尊心의 상처, 구걸하는 듯한 指導部의 西方援助要請과 서방의 인색한 態度에 對한 거부감, 無償으로 東歐圈支配를 서방에 양보한 失策에 관한 悔恨, 無制限의 蘇聯의 武裝解除의 危機意識, 強大國 國民의 地位에 爱着을 갖는 愛國心, 魔藥, 賣春 買占賣惜 등의 犯罪現狀, 을 겨울에 예상되는 大規模 食糧危機 및 暴動 가능성, 민족분규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突破口로서의 社會主義를 재선택할 가능성도 전혀 排除할 수 없다.

세계가 다시 냉전체제로 돌아갈 때 세계전체가 새로운 軍備競爭으로 말미암아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物的, 人的 損失들을 고려할 때 서방의 국가들이 소련 및 동구가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로 平和롭게 개혁, 개방이 되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蘇聯이 民主的이고 開放的이어야 함은 世界史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蘇聯國民들도 이러한 체제변동을 평화롭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共和國聯合體案 체결 및 分裂하고 있는 공화국간 過度聯邦政府의 수립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할 경우에는 러시아공화국을 중심으로 聯邦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北方政策을 통하여 이러한 소련 및 동구의 社會主義圈의 변동을 적절히 대처하여 交易을 증대하는 기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 지역에 관한 연구, 활동, 교류, 교역 등에 적극적인 支援을 하여 타 국가에 이 地域의 市場을 빼앗기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의 階級矛盾의 부정적 效果를 막음으로서 위화감 조성이나 勞動統制가 강화되거나 基層民의 反공의식이 瓦解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대체로 社會主義圈의 변동과 그곳의 어려운 生活相을 파악하고 適正勞動統制, 適正不平等을 인내하면서 生産의인 管理力を 보호하는 의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회주의의권의 체제변동이 마치 갑자기 均衡 잃은 저울처럼 社會主義 세력의 견제가 붕괴되고 오히려 자본주의 矛盾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 오히려 체제의 危機로 치닫을지도 모른다. 社會主義 세력의 存在 없이 形式的 民主主義에 實質的 民主主義를 接木시키는 것이 可能한지 의문인 것이다. 社會主義 개념이 실종된 資本主義 社會는 競爭에서 失敗한 낙오자들을 地獄과 같은 심연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실상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회주의의권의 變動은 자본주의의 極右化로 치닫게 하는 不安한 모습의 조짐도 보인다. 社會主義圈의 變動이 단지 人間主義에 對하여 實質主義가 勝利하는 世界史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最近 몇년사이 노사분규를 극심히 경험한 이후의 均衡잡힌 勞使關係 意識의 발전, 첨단기술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勞動의 질적향상의 노력, 공산당의 찬학한 歷史의 認識, 등으로 反共意識이 최근의 사회주의의권의 변동에 힘입어 強化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南韓은 體制優位의 自尊心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警戒意識이 緩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의 국력이 경제침체로 붕괴직전까지 나가는 北韓을 포용할 자신감이 있으며 소련의 군사적 支援을 받지 못하는 북한이 무모한 전쟁도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유엔동시가입, 한반도 비핵지대화선언, 전략무기군축협상, 각종 공동개발프로젝트, 남북한직교역 등의 교류는 統一의 가능성을 훨씬 높혀주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불발 쿠데타처럼, 북한이 開放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세계사적 非適應의 모순 때문에 갑자기 체제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남침으로 그 불안요인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전략전술상 全面戰보다는 내분 및 민중봉기를 이용한 게릴라전을 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겠다. 사회의 공동체의식, 일체감을 높힐 수 있는 政策들을 통하여 기층민과 근로자들의 反공의식이 튼튼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共產勢力에 대한 경계의식도 높혀야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견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의권의 體制變動은 근로자들의 反共意識을 強化시킨 반면 警戒意識을 극히 緩和시키고 있음에 또한 깊이留意해야 할 것이다.